

‘大秦景教流行中國碑’ 新譯*

임영택**

<目 次>

1. 들어가며
2. 景教 및 碑文에 관한 과거 연구
3. ‘景教碑’ 碑文 고찰
4. 나오며

1. 들어가며

중국의 기독교는 기원 7세기 경 이미 중원지역에 첫 발을 들여놓은 바 있다¹⁾.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서기 1625년 西安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바로 ‘大秦景教流行中國碑²⁾’이다. 당시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안파 그리스도교(Nestorianism)가 바로 唐에 들어 온 최초의 기독교 일파인데, 당시에는 이를 ‘景教³⁾’라 불렀으며, 唐 왕실을 중심으로 인정을 받으며⁴⁾ 상당히 성행하여 당시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林永澤,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 1) 서기 635년 아라본(阿羅本, Alopen) 일행이 經典과 耶蘇像을 가지고 唐나라 수도 長安을 방문하여 唐太宗을 알현하였다.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김호동, 까치, 2002, 128쪽 참조.
- 2) ‘大秦’은 당시 중국에서 로마제국을 칭하던 말임.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황정욱, 한신대학교출판부, 2005, 23쪽 참조.
- 3) 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명칭. ‘景’은 ‘光明’을 의미하므로 ‘景教’는 ‘빛의 종교’를 뜻함. 波斯教, 波斯經教, 波斯寺, 大秦寺, 大秦教, 大秦景教 등으로 불렸음. 『漢語景教文典詮釋』, 翁紹軍, 三聯書店, 1996, 4쪽 참조.
- 4) 638년에 경교는 唐 왕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후 경전 번역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大秦寺’라는 사원까지 건립하게 된다. ‘寺’는 본래 불교나 도교의 사원을 지칭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실들이 여러 가지 관련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져 있다.

景教碑⁵⁾는 본래 唐 建中 2년(기원 781년) 長安 大秦寺⁶⁾에 세워졌으며, 碑文의 내용과 글자는 景教僧 景淨이 撰하고 呂秀巖이 題하였다. 景교는 당시 150여년간 唐 조정의 지원을 받으며 번창하였다가, 時局의 급변으로 인해 불교 탄압時 景교비가 함께 매몰되었으며, 明 天啓 5년(162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西安 부근에서 출토되어, 淸 光緒 33년(1907년)에 西安 碑林으로 옮겨졌다.

景교비의 碑文에는 景教의 주요 教旨와 여러 儀式들이 소개되어져 있으며, 특히 景교가 中國에 傳敎된 이후 150여 년 간의 布敎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景教의 문헌으로는 ‘大秦景敎流行中國碑’ 외에도 〈景敎三威蒙度讚〉, 〈尊經〉, 〈志玄安樂經〉, 〈一神論〉, 〈序聽迷詩所訶經〉, 〈宣元至本經〉, 〈大聖通真歸法讚〉 등이 있는데, 〈一神論〉과 〈序聽迷詩所訶經〉은 7세기 전반 것이며, 그 외는 모두 8세기 것으로 추정된다⁷⁾.

景교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中國, 일본을 비롯해 다수의 서양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 일정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⁸⁾. 일본의 학자들이 주로 문헌연구에 치중하였는데, 특히 景교연구의 대가인 일본의 佐伯好郎(사

는 말이지만, 새로운 외래종교의 敎堂 건물에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이 당시로서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64-68쪽 참조.

5) 이하 ‘景교비(景敎碑)’로 약칭함.

6) 景教의 근원지를 지칭함.

7)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황정욱, 한신대학교출판부, 2005, 68쪽 참조.

8) 林悟殊, 「西安景敎碑研究述評」, 〈中國學術〉, 2000年 第1期, 3~5쪽 참고.

景교비에 관한 서양인들의 연구는 대부분 기독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인 Emmanuel Diaz(1574-1644)가 1641년에 중국어로 〈唐景敎碑頌正註〉을 편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주의 사상가인 François-Marie Arouet(1694-1778)가 景교비의 眞僞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으며, 이후 19세기 이후부터 여러 선교사들이 학자의 입장에서 景교 비문을 해석하고 연구해 낸 성과들이 발표되었다. 프랑스 신부 M. L'Abbe Huc의 〈中國中原·鞏靄和西藏的基督教〉, 프랑스인 G. Pauthier의 〈西安府的叙利亞-漢文碑〉, 영국 선교사 A. Wylie의 〈西安府景敎碑〉, 영국 한학자 J. Legge의 〈陝西西安府景敎碑〉, 프랑스 선교사 Henri Havret의 〈西安府基督敎碑〉 등이 있으며, 20세기 이후로는 영국의 A. C. Moule와 H. A. Giles, 그의 아들 L. Giles의 연구가 유명하다. 또한 J. Foster와 G. Rosenkranz, 그리고 Paul Pelliot 등의 연구성과가 알려져 있다.

에게 요시로우)은 평생을 전념하여 여러 景教 문헌들에 대한 번역을 완성한 바 있으나, 경전 번역에 다수의 오역도 발견된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중론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주로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개념연구에 몰두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기독교의 전파 및 보급 정도에 비하면 景教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주로 단편적인 연구에 치중하여 景教 문헌이나 교리, 사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아직은 미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은 경교의 대표적 문헌이라 할 수 있는 景教碑文에 대해 보다 언어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기존 번역의 誤譯 및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시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完整的한 번역을 시도해보려 한다. 경교 경전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이를 통해 景教思想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상적, 철학적 접근에 선행하여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景教 및 碑文에 관한 과거 연구

1) 景教 관련 연구

지금까지 국내의 景教 관련 종교·역사·문화사적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 연구결과로 학위논문은 아래와 같은 성과들이 있다.

- 「경교의 중국 전래에 대한 고찰」, 배영철,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석사, 1983
- 「경교의 신사상연구 : 토착화를 중심으로」, 김경호, 한신대학교, 석사, 1985
- 「Nestorius派의 東方傳來史 研究 : 景教를 中心으로」, 임정의, 박사, 1994
- 「네스토리우스 異端論과 景教에 關한 研究」, 박찬용, 인하대학교, 석사, 1995
- 「唐나라 景教의 形成과 大秦景教流行中國碑에 대한 考察」, 김응배, 한신대학교, 석사, 1995
- 「원대까지 잔존한 경교에 대한 소고」, 김은봉, 영남신학대학교, 석사, 2002

- 「당나라 경교 토착화(本色化)에 대한 연구」, 김학철,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 2002
 학술지에 실린 소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이 있다.⁹⁾
- 「경교사상의 연구」, 이장식, 神學思想, Vol.2, 1973
 「景教 一神論 研究」, 李章植, 東西文化, Vol.8, 1975
 「중국 당대(唐代)의 기독교 : 景教를 중심으로」, 지배선, 人文科學, Vol.68, 1992
 「唐代 景教 教團의 活動과 그 性格(外來宗教에 대한 唐의 태도와 관련하여)」, 趙晟佑, 중
 국고중세사연구, Vol.4, 1998
 「당대 경교의 성쇠에 관하여」, 이경규, 中國史研究, Vol.11, 2000
 「경교 일천론 제일에 나타난 신학 사상 연구」, 황정욱, 神學思想, Vol.116, 2002
 「景教의 土着化에 대한 一考」, 이경규, 대구사학, Vol.70, 2003
 「景教 世尊布施論第三에 나타난 중국불교의 영향 연구」, 황정욱, 韓國教會史學會誌,
 Vol.12, 2003
 「景教 志玄安樂經에 나타난 중국 종교의 영향 연구」, 황정욱, 韓國教會史學會誌, Vol.14,
 2004
 「大秦景教流行中國碑 비문(碑文) 역주(譯註)」, 우심화, 神學과 宣敎, 제9호, 2005
 「경교의 형상유물 연구」, 황정욱, 韓國教會史學會誌, Vol.16, 2005
 「당대 둔황한문경교에 대한 사경 연구(唐代敦煌漢文景教寫經研究述評)」, 王兰平, China
 研究, Vol.2·3, 2007
 「경교(景教)와 가톨릭이 한국 기독교 선교에 끼친 영향」, 안재은, 신학지남, Vol.75, 2008

9) 단행본으로는 대략 아래의 연구성과들이 있다.

- 『景教入門』, 신직도, 敎文館, 1981
 『15世紀 以前에 東方에 온 前敎사』, 서양자, 계성출판사, 1986
 『景敎의 遺物 : 東洋의 古代 그리스도敎』, 徐良子, 순교의맥, 1991
 『景敎 : 동양에 전파된 기독교』, 이경운, 동서남북, 1996
 『중국기독교사』, 이관숙, 쿤란출판사, 1997
 『문명교류사연구』, 정수일, 사계절, 2002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김호동, 까치, 2002
 『경교의 역사와 신학』, Young, John M. L, 동서남북, 2004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황정욱, 한신대학교출판부, 2005
 『(아시아 기독교) 경교의 이야기』, 정학봉, 동서남북, 2009
 『경교(景敎), 아시아교회 : 동쪽에서 돌아온 기독교』, 천구일언, 동서남북, 2010
 『기독교 신앙의 아시아적 전개』, 기진오, 쿤란, 2010
 『예수, 당대중을 사로잡다 : 당(唐)·원(元) 시대의 기독교 이야기』, 구범희, 나눔사, 2012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최상한, 들베개, 2012
 『중국교회사 연구 : 경교(景敎)와 천주교(天主敎)의 전파를 중심으로』, 이경규, 대구가톨
 립대학교출판부, 2014

景教에 관한 과거 국내 연구는 수요가 많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로 종교적·문화적 본질에 관한 연구나 포교의 상황,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비문이나 경교 경전에 대한 기초연구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2) 景教 碑文에 관한 연구

景教의 종교적·문화적 연구에 비해 景教碑의 碑文 내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국내연구¹⁰⁾로는 『기독교대백과사전¹¹⁾』, 이관숙의 『중국기독교사¹²⁾』, 정수일의 『문명교류사연구¹³⁾』, 이경운의 『경교¹⁴⁾』, 우심화의 「大秦景教流行中國碑 비문 역주¹⁵⁾」 등이 있다. 그간의 비문 번역이 경교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심화가 언급한 것처럼 번역 내용이 註解도 없이 난해하거나, 誤譯했거나, 단지 草譯에 그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비판한 우심화의 번역도 비문 全文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粵若, 常然真寂'에서 '強稱景教'까지 약 450여 자의 번역에 그치고 있어 비문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황정욱¹⁶⁾은 景教碑의 碑文을 내용에 따라 22 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 바 있는데, 각 부분마다 상세한 해설과 함께 번역을 하여¹⁷⁾ 경교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대륙의 연구로는 翁紹軍의 『漢語景教文典詮釋』¹⁸⁾이 景教碑 全文에 대한 가장 세밀한 註解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景教碑를 포함한 총 8 편의 경교 경전에 대하여 기존 연구를 참고하고, 비문에 출현하는 다수의 어휘들에 대해 자

10) 우심화, 〈大秦景教流行中國碑 碑文 譯註〉, 301쪽 인용.

11) 기독교문사, 1985, 598~600쪽.

12) 콤파출판사, 1995.

13) 사계절, 2002, 98~108쪽.

14) 동서남북, 1996.

15) 〈神學과 宣教〉, 제9호, 2005.

16)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161~195쪽.

17) 上同, 159~198쪽.

18) 三聯書店, 1996.

세한 출처와 주석을 곁들여 오역을 바로잡고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다.

본문은 국내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大秦景教流行中國碑’ 碑文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과거 연구자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참고하되, 이들이 밝혀놓은 註解에 대해 최대한의 언어학적 단서를 찾아 기존 註釋의 타당성을 살펴볼 것이며, 기존 번역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어 이를 수정하고, 보다 기독교적인 용어와 해설로 일반 신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3. ‘景教碑’ 碑文 고찰

1) 景教 碑文 개괄

景教碑의 碑文은 총 1,780개의 한자로 구성되었으며, 40 개의 시리아(Syria)어 단어가 있고, 76명의 景教僧 이름이 쓰여있다. 碑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의 정면에는 ‘頌并序’가 새겨져 있고, 정면 하단과 좌우면에는 당시 경교승¹⁹⁾들의 이름과 직분을 밝힌 시리아문이 있다²⁰⁾.

비문의 글자는 楷書體로 쓰여있으며, 각 어구의 글자수는 기본적으로 4자 율격을 유지하나, 接續詞나 助詞, 語氣詞 등이 결합되면 5 자, 6 자, 7 자 등으로 형식이 다양해져 딱히 운문으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다만 후반부 ‘頌’에서는 네 글자의 엄격한 율격을 지니고있다.

景教碑의 碑文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교의 신앙적 大義, 教理 및 儀禮에 관한 소개이며, 둘째는 당태종 때 중국에 傳入된 과정, 전래된 이래 150여 년간(태종부터 덕종까지 5대) 받은 대접 및 전파상황을 기술하고 있고, 셋째는 頌詞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측면에 기

19) 76명 모두 페르시아 쪽에서 온 景教僧들이며, 漢字 僧名을 가지고 있다. 비문에 기록된 唐僧은 한 명도 없음이 특이한 사실이다.

20) 『문명교류사 연구』, 정수일, 사계절, 2002, 80쪽.

록된 당시 성직자들의 서명(한문명과 시리아명 併記)이다.

한 때 景教碑의 眞僞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James Legge는 비문에 예수의 기적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 즉 기독교 교리의 핵심내용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점²¹⁾을, E. E. Salsbury는 비문의 시리아어 단어가 8세기 당시의 시리아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碑의 위조를 주장한 바 있다²²⁾. 또한, 약 천 년 전에 쓴 것으로 믿기에는 서체가 너무나 현대적이라는 이유를 말한 사람도 있다²³⁾. 그러나 현재 기독교나 철학, 사학, 문헌학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근거로 경교비를 진품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대세이며, 본고의 연구내용은 경교비의 진위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景教碑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碑文의 작자인 경교승 景淨은 틀림없는 중앙아시아인이지만 儒·佛·道三敎와 漢學에 두루 능통한 學僧이었다고 하며, 최초의 경교 경전인 〈序聽迷詩所訶經〉을 비롯해 여러 권의 시리아문 경전을 漢譯했다고 한다²⁴⁾.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漢文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어쨌든 서역에서 건너온 외래인이므로 단순한 문장이 아닌 사찰의 비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곁에 漢人 조력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이 조력자의 古文실력이 비문 제작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문의 내용은 口語體가 아닌 文言이기 때문이다.

둘째, 景教碑의 建立 목적과 대상인데, 경교가 흥성했을 시에는 당나라에 신도 수가 4~6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평민은 수효가 매우 적으며 신도의 대부분은 서역 외래상인이거나 唐 거주 군인들로 파악된다고 한다. 경교비를 건립한 목적이 단순히 布敎를 위한 것이었는지, 황실의 비호를 받고있는 종교로서

21) 上同, 80쪽.

22) 『中國基督教史略』, 李寬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10~11쪽.

23) 『역사와 신학』, Young, John M. L, 정학봉 역, 동서남북, 2004, 47쪽.

24) 『문명교류사 연구』 79쪽.

일종의 教勢 誇示用이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셋째, 碑文의 내용상 예수의 생애, 사망, 부활사건 등에 관한 기술이 없는 이유, 그리고 창세기를 언급하며 동시에 십자가와 세례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 등이 궁금하다. 이것이 단순히 당시의 토착신앙과의 이질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며, 특히 네스토리안과의 敎理문제²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이 특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2) 碑文 내용

景教碑의 碑文은 古文으로서의 매우 古雅한 文體的 성격을 잘 가지고 있으며, 표현하는 내용 또한 대단히 심오하다. 난해한 종교적 용어의 사용은 물론 깊은 철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표현들이 많아 해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先秦부터 이어져 온 일반적 古文의 표현양식과는 또다른 방식의 표현이 많으며, 韻文이 아니면서도 대단히 함축적인 표현들이 많아 상당한 古文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景教碑文을 서술된 내용에 따라 총 29개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기로 하며, 이는 新譯 연작 논문 중 제 1편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논리 전개상 앞으로 번역해 다룰 후속 논문에 앞서 서론적으로 논문의 방향을 정리하고, 경교비 전체의 처음 부분인 인간의 타락 부분까지를 비교 해석해 본문의 이해를 정확히 해보도록 시도할 것이다. 즉 '(1)비문 제자 및 기초자'부터 '(4)인간의 타락상'까지를 먼저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찰해보기로 한다.

(1) 碑文 題字 및 起草者

大秦景教流行中国碑颂(并序)

25)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의 이성설(二性說)을 주장하여 神性和 人性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마리아는 예수를 낳기는 했지만 神의 어머니(聖母)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로스에게 공격을 받고 에베소공의회로부터 異端으로 배척받아 추방당했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 송(병 서)
大秦寺僧景淨述
대진사 승 경정 지음

○ 頌(并序) : '序'는 碑文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반부에 나온다. 이 내용을 간략히 韻文으로 간추려놓은 것이 '頌'에 해당한다.

○ 大秦寺 : 역사적으로 기독교(Nestorianism)가 중국에 전파된 이후 최초의 사원이다. 또한 중국의 경교 사원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 景淨 : 본래 이름은 Adam으로서 서역 시리아에서 온 景教 선교사이다. 뛰어난 漢文실력으로 경교비의 비문을 지은 사람이며, 당시 경교의 총주교라고 할 수 있는 교부(敎父, Papas)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일찍이 불교의 승려들과도 자주 내왕하며 불경 번역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粵若, 常然真寂, 先先而無元, 窅然靈虛, 後後而妙有, 總玄樞而造化,
妙眾聖以元尊者其唯, 我三一妙身, 無元真主, 阿羅訶歟.

아아, 진리의 고요함 속에 향존하시도다! 태초 이전부터 시작도 없이, 현묘하고 그윽하게 존재하시는 이여, 종말이 있는 후에도 신묘하게 존재하시어, 늘 세상을 세상을 이끌어내시어 조화롭게 하시는도다. 못 성현·제왕을 현묘케 하시는 至高의 유일한 분이신, 우리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 粵若 : 文頭에 쓰이는 發語詞로서 뒤의 문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1. 漢·王延壽《魯靈光殿賦》: “粵若稽古帝漢, 祖宗濬哲欽明.”

2. 唐·殷璠《敍》: “粵若王維, 王昌齡, 儲光羲等二十四人, 皆河岳英靈也.”

○ 常然 : '長久', '恒存', '常存'의 의미. 神의 영원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 真寂 : 佛敎용어로서 '涅槃'을 따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涅槃'은 '맑고 고요하여 번뇌가 일지 않으며, 不生不滅의 세계로서 중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곳'을 말한다. '참되고 고요한 진리의 세계', 즉 靈界를 설명하고자 부득이 불교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常然真寂’은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신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 先先 : 太初보다도 이른 始原을 설명하고자 글자를 중첩하여 강조한 듯하다.

○ 無元 : ‘元’은 起源, 始初, 始原을 뜻한다.

○ 窅然 : ‘그윽하고 아득한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다.《莊子·知北遊》: “夫道, 窅然難言哉! 將爲汝言其崖略.”

○ 靈虛 : ‘窅然靈虛’는 앞에 나온 ‘常然真寂’와 對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靈虛’도 ‘真寂’과 같이 竝列구조(26)의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虛靈’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본래 道家의 철학용어로서 ‘우주 탄생 최초의 원시세계의 혼란과 혼돈’을 의미한다. 이것이 나중에 인간에게 투영되어 ‘질박하고 참된 풍격이나 존재’를 뜻하게 되었다.《辭海》: 虛者, 空; 靈者, 聰明.

○ 後後 : 前句 ‘先先’과 對를 이루며, ‘세상의 끝, 종말, 말세’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妙有 : ‘신묘하게 존재한다’는 뜻의 佛敎용어이며, ‘空’에 속하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전, 진화하는 ‘空’, 즉 영원불멸의 존재를 뜻한다.《佛學大辭典》: 【妙有】: 非有之有曰妙有. 以對於非空之空而曰真空也.” 道敎용어로는 ‘有와 無를 초월하는 원시의 존재’를 뜻한다.

○ 總玄樞 : ‘總’은 비문에 본래 ‘惣’으로 표기되었다. ‘玄’은 ‘심오하다’, ‘오묘하다’, ‘신묘하다’ 의미의 형용사이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저명한 漢學者인 A.C. Moule은 ‘樞’를 ‘樞’로 간주해 해석하였다. 동사 ‘樞’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인 듯한데, 翁紹軍(27)과 朱謙之 또한 이 견해를 따랐다. ‘樞’가 ‘중요한 부분’, ‘중심, 중추’의 의미가 있어 ‘玄樞’(28)를 ‘奧妙한 中樞’로 해석한 것이다. 한

26) 한 단어 내에서 두 글자 간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뜻한다. 중국어의 생성, 변화과정에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규칙은 거의 변화 없이 중국어 어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主述’, ‘述目’, ‘述補’, ‘修飾’, ‘竝列’ 다섯 가지 통사적 관계를 말한다.

27) 『漢語景教文典詮釋』, 三聯書店, 1996, 45쪽.

28) 玄樞: 1. 북두성 唐 王勃《乾元殿頌序》: “玄樞上運, 十年開累聖之符; 丹灶升遐, 遺範敞謀孫之畫.” 2. 도의 오묘한 의미를 파악하는 중추, 唐 皎然《寒禪子歌》: “禪子妙今道已成, 手把玄樞心運冥.”

편, 영국의 한학자 James Legge는 이러한 해석을 誤讀이라 비판한 바 있다.

동사 ‘攄’의 本義는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끄집어 내다’의 뜻이지만, 후에 의미가 引伸되어 ‘손으로 들어 올리다(提起)’, ‘탐구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통사적 분석을 해보면, ‘惣’은 副詞語로서 接續詞 ‘而’를 사이에 두고 술어 ‘玄攄’와 ‘造化’를 모두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玄攄’와 ‘造化’는 모두 動詞性일 수밖에 없으며, ‘玄攄’ 또한 副詞語와 中心語의 구조를 이루는 수식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의미는 ‘현묘하게 (만물을)이끌어내시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前人의 연구를 따라 ‘攄’를 ‘樞’로 간주해본다면, 실제 〈古字通假會典〉²⁹⁾에는 ‘攄’와 ‘樞’를 通假字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碑石의 건립목적이나 碑文이 전과할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문을 새기면서 굳이 通假字나 誤字를 넣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비문 제작 정확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樞’ 대신 비슷한 의미의 다른 글자도 여럿 있는데, 굳이 通假字 ‘攄’를 써야만 할 어떠한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추론이다.

만일 ‘攄’와 ‘樞’를 서로 통용되던 글자로 간주하여 통사적 분석을 해보면 ‘玄攄’가 명사성 목적어가 되며 따라서 ‘惣’은 ‘主管하다’ 의미의 동사가 된다. 즉, 의미는 ‘현묘한 중추를 주관하고 조화롭게 하다가 되며 이러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어구는 碑文 속의 문장임을 고려할 때 전자의 해석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造化 : ‘조화롭게 하다.’ ³⁰⁾

○ 妙衆聖 : ‘여러 聖인과 帝王들을 신묘하게 하다.’ ‘衆聖³¹⁾’은 ‘여러 성인, 제왕’을 가리킴. ‘妙’는 형용사로서 ‘현묘하다’, ‘깊고 심오하다’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形容詞의 使動用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용사 사동용법은 古代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品詞活用 현상으로서 어떤 한 품사의 글자가 기본 어법기능이

29) 336쪽. 〈莊子·盜跖〉: “穴室樞戶.” 〈闕誤〉引劉得一本樞作攄.

30) ‘總玄攄而造化’는 종말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여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듯하나, 종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이 창조하고 이를 조화롭게 하는 영원불멸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漢書·董仲舒傳》: “衆聖輔德, 賢能佐職.”

漢 孔融《聖人優劣論》: “唯天爲大, 唯堯則之, 是謂覆益衆聖最優之明文也.”

임시로 변화되어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의미는 ‘~로 하여금 ~(하)게 하다’이다. 즉, ‘衆聖을 玄妙하게 하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 경교비문을 해독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을 ‘妙衆聖以元尊者, 其唯我三一妙身, 無元真主, 阿羅訶歟’로 斷句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와 견해를 달리 한다. 경교 비문의 拓本을 살펴보면 ‘其唯’ 다음에 두 칸 정도의 간격을 명백히 띄운 후 ‘我三一妙身’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 비문 전체 내용 중 이러한 간격 표시는 文段을 구분하는 표시임이 분명하며, 경교 비문에는 총 22 곳의 문단 구분 간격이 존재한다. 碑面의 여백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굳이 이 부분에서 간격을 띄워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데, 기존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모두 이렇게 斷句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이를 ‘妙衆聖以元尊者其唯, 我三一妙身, 無元真主, 阿羅訶歟’로 처리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 以元尊者 : ‘以’는 ‘~로(서)’의 의미가 타당할 것이다³²⁾. 즉, ‘지고지존한 神으로서’ 의미의 副詞語로 보아야 뒤에 나오는 ‘其唯’와 결합이 자연스럽다.

‘元尊’은 道家의 용어로서 ‘至高의 神’인 ‘元始天尊’을 일컫는다³³⁾.

○ 其唯 : 主述구조로서 ‘그가 유일하다’³⁴⁾의 의미.

○ 三一妙身 : 다수의 학자들이 본래 佛家에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三位一體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 불교용어를 차용했다는 뜻인데, 그러나 정작 중국의 〈佛學大辭典〉, 〈丁福保佛學大辭典〉, 〈三藏法數〉 등에는 ‘三一妙身’이나 ‘三一’, ‘妙身’ 등의 표제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즉, 불교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네스토리우스파가 주장하던 어떤 교리적 개념, 즉 삼위일체론을 표시하기 위해 景教碑 제작 당시 造句해낸 어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三一妙身’을 분석해보면, ‘三一’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관형어로 사용된 듯하며, ‘妙’도 ‘기묘함’을 일컫는 관형어로 모두 중심어 ‘身’을 수식하는 구조이다. 즉, ‘三位

32) 翁紹軍은 ‘給予’로 해석하고 있다.

33) 『漢語景教文典詮釋』, 45쪽.

34) 孔子曰 :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가 하나되신 기묘하신 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三位一體'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位格을 갖고계시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며, 이는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본 教義와도 일치한다.

○ 無元真主 : '無元'은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真主'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태동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唯一無二한 존재이며, 최고의 主宰'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던 고대 중국어 표현이다. '阿羅訶'는 바로 이런 시리아어 'Allah', 'Alaha', 'Aloho', 'Alohe'와 히브리어 'Elohim³⁵⁾' 등을 음역한 말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뜻한다.

○ 阿羅訶 : 시리아어 'Alaha'를 음역한 말로서 景教의 '하나님'을 뜻한다.

○ 歟 : 文言文 말미에 사용하는 어기조사로서 '의문', '감탄', '반문'의 語氣를 표현한다.

(3) 천지 창조

判十字以定四方；鼓元風而生二氣。 暗空易而天地開；日月運而晝夜作。
匠成萬物， 然立初人；別賜良和， 令鎮化海。

十字로 사방을 나누어 동서남북을 확정하시고: 聖靈을 일으키시어 빛과 어두움을 만들어 내시었다. 어두움이 변하여 천지가 열리고: 해와 달이 운행하여 낮과 밤이 만들어졌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에 이처럼 첫 사람 아담을 세우시고: 특별히 어진 베필을 내리시어, 온세상을 다스리라 명하셨다.

○ 判 : '나누다', '분별하다', '판단하다'의 의미이다. 翁紹軍은 '확정하다'로 간주했으나, 뒤에 나오는 '定'도 '확정하다'이므로 의미의 重疊으로 문맥이 어색해진다. '十字'가 '判'의 목적어이고, '四方'이 '定'의 목적어가 되어, 두 개의 동사구가 나란히 연결된 連謂句로 보아야 한다.

'以'는 文言에서 사용되는 접속사로서 '而'와 상통한다. '判十字'와 '定四方' 두 어구를 순차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사 '判'의

35)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 여호와('Yahweh', 'Jehovah')와도 語音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

의미는 ‘확정하다’보다는 ‘분별하다, 나누다’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 十字 : 翁紹軍³⁶⁾에 의하면 ‘十字’를 ‘十字架’로 보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천지 창조를 서술하면서 新約시대 이후의 예수 十字架를 언급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라 할 수 있다. ‘十字’는 단지 四方을 표시하는 標式일 뿐이다.

○ 四方 : 地面의 네 개 방향, 즉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 鼓元風 : ‘聖靈을 일으키시어’. ‘元’은 ‘元尊’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元風’은 ‘하나님의 靈’, ‘聖靈’을 뜻한다. ‘鼓’는 동사의 使動용법으로서 ‘振作시키다’의 의미이다.

○ 生二氣 : ‘빛과 어두움을 만들어 내시고’. ‘二氣’는 道家에서 말하는 ‘陰陽’이며, 중국철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진 개념³⁷⁾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누었던 ‘빛과 어두움’의 개념을 ‘二氣’를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生’은 동사 使動용법이다.

○ 暗空 : ‘어두움’, ‘흑암’의 의미이다.

○ 易 : ‘바뀌다’, ‘변화하다’. ‘暗空易而天地開’는 ‘어두움이 변하여 천지가 열린다’의 의미로서 낮과 밤의 구별을 뜻한다. ‘而’는 順接의 접속사이다.

○ 匠成 : ‘匠’은 ‘창조하다’, ‘만들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匠化’는 ‘教化’를 뜻하며, ‘匠成³⁸⁾’은 ‘만들어 배양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然立初人 : ‘이처럼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니’. ‘然’은 ‘이처럼’, ‘이렇게’ 의미의 副詞語, 즉 前句의 ‘匠成萬物처럼’이란 뜻이다. ‘初人’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한다.

○ 別賜良和 : ‘별도로 어진 베풀을 내리시어’. 부사어 ‘別’이 述目구조의 중심어 ‘賜良和’를 수식하고 있다. 술어동사 ‘賜’는 ‘내리다, 하사하다’의 의미이며, 목적어 ‘良和’는 修飾語 ‘良’이 被修飾語 ‘和’를 꾸며주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良善한 和合(同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6) 『漢語景教文典詮釋』, 45쪽, 王治心編《中國宗教思想史大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37) 宋 曾慥《高齋漫錄》: “天地尊位, 二氣合而萬物生; 日月并明, 四時敘而百度正.”

《兒女英雄傳》第九回: “以二氣言, 則鬼者, 陰之靈也; 神者, 陽之靈也.”

38) 《淮南子·泰族訓》: “入學庠序, 以修人倫, 此皆人之所有於性, 而聖人之所匠成也.”

翁紹軍³⁹⁾은 陽瑪諾⁴⁰⁾의 說을 인용하면서 ‘良和’를 ‘靈性’이라 번역하였고, 潘紳, 朱謙之, 우심화 등도 ‘靈氣, 靈性’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사 ‘賜’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聖書 創世記의 내용에 근거하여, 만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靈性’이나 ‘生氣’를 불어넣으신다면 ‘給’이나 ‘予’를 쓰지 않았을까? 굳 이 ‘賜’를 사용한 것은 아담에게 어진 베필로 하와를 내리신 것이 아닐까? ‘賜’는 본래 ‘위가 아래에게 무언가를 주다⁴¹⁾’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令鎮化海 : ‘온세상을 다스리라 명하셨다’. 述目구조 ‘鎮化海’가 中心述語 ‘令’의 목적어가 된다. ‘鎮’의 기본 의미는 ‘사물에 힘, 압력을 가하다’이며, 의미가 引伸되어 ‘정복하다, 다스리다’로 발전한다. ‘化海’는 위에서 언급한 ‘造化된 세계’를 말한다.

(4) 인간의 타락상

渾元之性, 虛而不盈; 素蕩之心, 本無希嗜. 泊乎娑羅施妄, 鈿飾純精, 間平大於此是之中, 隙冥同於彼非之內, 是以三百六十五種, 肩隨結轍, 競織法羅. 或指物以託宗; 或空有以淪二; 或禱祀以邀福; 或伐善以矯人; 智慮營營, 思情役役; 茫然無得, 煎迫轉燒; 積昧亡途, 久迷休複.

인간의 본성은 겸허하여 교만하지 않고, 소박하여 분시 욕심내지 아니 하나, 사탄이 간계를 부리게 되어,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꾸며내 더럽혀 버렸다. 그 간격이 작으면 이 참진리보다도 크고, 그 간격이 깊으면 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수많은 異教 宗派들이 줄 줄이 출현하여 다투어 여러 종교의 어리석은 思想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사물을 숭배하여 종교로 삼고자 하며, 어떤 이는 만유의 공허함을 주장하여 空과 有를 한 데 섞어버리고, 어떤 이는 기도와 제사에만 힘써 신의 축복을 얻고자 했으며, 어떤 이는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며 못사람들을 속이고자 한다.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이 분주히 많으나 망망하기만 하여 얻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빈틈없이 움츠리고 재촉하여 불에 타는 듯하며, 우매함이 날로 쌓여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고, 오래도록 迷妄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39) 『漢語景教文典詮釋』, 46쪽.

40) Emmanuel Diaz, 명나라 말기(1574-1644) 중국에 온 포르투갈 선교사.

41) 《正字通》: 上予下曰賜.

○ 渾元 : '渾元'은 '천지의 기운⁴²⁾', '자연·인간의 본성'을 뜻한다.

○ 虛而不盈 : 聖書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겸허하여 교만하지 않다'. '虛'는 형용사로서 '겸허하다'의 의미. '盈'은 '충만하다, 초과하다'의 의미이지만 문맥상 '교만하다'로 해석한다. '而'는 順接의 접속사.

○ 素蕩 : '소박하고 넓은'. 병렬구조로 구성된 단어이다.

○ 希嗜 : '바라고 좋아하는 것'. 병렬구조.

○ 泊乎 : '泊'는 '~에 이르다, 미치다', '乎'는 前置詞로서 '於'에 상당한다. 따라서 '泊乎'는 '~까지 기다리다', '~에 이르다'의 의미이다. 이 어휘는 주로 다른 동사나 주술구 앞에 쓰여 주요 동작이 발생하는 시각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⁴³⁾.

○ 娑禪 : 히브리어 **שָׂטָן** (Satan)의 音譯語.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

○ 施妄 : '망동을 하다'. '施'는 '행하다', '실행하다'의 의미이다.

○ 鈿飾 : '鈿'과 '飾'은 모두 '꾸미다', '장식하다' 의미로서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 純精 :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 間平大於此是之中, 隙冥同於彼非之內 : '그 차이가 작으면 이 참진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 크고, 그 간격이 깊으면 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은 경교비문 가운데서 해독이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서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부분이다. 이 부분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漢語景教文典詮釋』 47쪽에 잘 소개되어져 있으나, 본문은 경교비 관련 국내의 몇몇 학자들의 해석을 먼저 예시해본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정수일⁴⁴⁾ : "신과 평등하다거나 오히려 더 위대하다는 자족망상(自足妄想)으로 이간(離間)되고, 신과 같이 심원하다는 비의(非義)로 원격(遠隔)되어버렸다."

황정옥⁴⁵⁾ : "참 본성과 간격이 만들어지고 참 사랑과 틈이 벌어져 본성

42) 《漢書·叙傳上》: "渾元運物, 流不處兮." 三國 魏 曹操《陌上桑》詩: "絕人事, 游渾元."

43) 唐·楊炯《王勃集》序: "泊乎潘陸奮發, 孫許相因, 繼之以顏謝, 申之以江鮑."

44) 『문명교류사 연구』 98쪽.

45)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163쪽.

적 악과 같게 되었다.”

우심화⁴⁶⁾ : “선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에덴동산에 살고 있는(혹은 선악과가 있는 에덴동산에 사는) 시조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사념(邪念)을 시조에게 붙여넣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혹은 욕심)으로(창 3:5: 사 14:12-14: 빌 2:6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도록 시조에게 술수를 꾸몄다.”

김호동⁴⁷⁾ : “(하나님과) 동등한 위대함(平大)을 이 올바른 (마음) 속에 심어주고, (하나님과) 신비한 동일함(冥同)을 저 그릇된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했다.”

翁紹軍⁴⁸⁾ : 陽瑪諾의 견해를 따른다고 밝혔다. “跟本善之真性相間隔, 仇隙真愛而同於本惡. (본래 선의 참됨과 사이가 벌어지고, 참사랑과 어긋나 본래의 악과 같아지게 됐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해석들이 모두 종교적, 철학적 각도에서 접근하여 난해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形而上學적이고 다소 術學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문은 古文 번역에 있어 기타 제요소들을 배제시키고, 단지 言語學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학자들의 경우, ‘平大’, ‘此是’, ‘冥同’, ‘彼非’ 등을 하나의 어휘로 간주하여 해석하는데, 이는 매우 牽強附會한 측면이 있으며 확실한 典據를 발견해내기도 쉽지가 않다. 이에 보다 巨視적이고 統辭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間平大於此是之中’은 ‘隙冥同於彼非之內’와 명백한 댓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語句의 구조적 측면에서 각 文章成分들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있다. 즉, ‘大於此是之中’과 ‘同於彼非之內’가 확연한 對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형용사+전치사+NP+之+장소사’구조이다. ‘此是’와 ‘彼非’는 모두 ‘관형어+중심어’구조이며, ‘是’와 ‘非’는 모두 형용사로서 ‘옳다(참진리)’, ‘그르다(사악함)’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大於~~’와 ‘同於~~’는 고대중국어에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比較句文인데, 前者는 差等比較, 後者는 同等比較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두 어구의 앞

46) <大秦景教流行中國碑 碑文 譯註>, <神學과 宣敎>, 제9호, 2005, 315쪽 참조.
47)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122쪽.
48) 『漢語景敎文典詮釋』, 47쪽.

부분에 나오는 '間平'과 '隙冥'도 각각 명백히 전후 對를 이루고 있으며, 이 또한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각각 主述구조의 독립된 어구로서 英語의 條件節 짝에 해당한다. 의미는 '~~하면'으로서 조건을 표현하는 從屬어구라고 볼 수 있다.

○ 間 : '틈, 간격, 공간, 간극'. 의미가 引伸되어 '추악한 곳'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 隙 : 上同.

○ 平 : '균일하다', '균등하다', '단순하다'.

○ 冥 : '오묘하다', '깊다', '심오하다'.

○ 是以 : '所以'와 같은 의미.

○ 三百六十五種 : '수많은 異敎의 宗派들'. 陽瑪諾과 朱謙之, 佐伯好郎 등은 모두 이를 수많은 異敎들의 발생과 이로 인한 분쟁을 묘사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⁹⁾. 徐謙信은 1년 365일을 지칭한다고 했으나, 당시 중앙아시아나 중국은 太陰曆⁵⁰⁾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肩隨結轍 : '줄줄이 나타나다'. '肩隨'는 '어깨를 나란히 하다' 혹은 '뒤따르다⁵¹⁾'. '結轍'는 '차량의 왕래가 끊이지 않다⁵²⁾'. '轍'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를 뜻한다.

○ 競織法羅 : '다투어 여러 종교의 그물(어리석은 思想)을 짜다(내어놓다)'. '競織'과 '法羅'는 述目관계이며 '競'은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法羅'는 '종교의 그물' 즉 '어리석음'을 뜻하며, '羅'는 '羅網(그물)'을 뜻한다.

○ 指物以託宗 : '사물을 지명(승배)하여 종교로 삼는다', 즉 우상승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以'는 접속사로서 '而'와 용법이 상통한다.

○ 空有以淪二 : '空虛와 實存을 한 데 섞어버리다'. 陽瑪諾이 이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翁紹君은 '有와 無가 양극(二極)으로 빠지게 되다'라고 해석하고 있

49) 우심화, 〈大秦景敎流行中國碑 碑文 譯註〉, 318쪽 인용.

50) 현재 터키, 이란, 아라비아, 이집트 등 이슬람지역에서 사용하는 이슬람력이 순태음력으로 남아 있으며, 태음력에서는 29일의 작은달과 30일의 큰달을 번갈아 배치하여 1년을 12달 354일로 하고, 30년에 11일의 윤일을 두어 달의 朔望과 날짜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51) 南朝 齊 王中《頭陀寺碑文》: "澄什結轍於山西, 林遠肩隨乎江左矣."

52) 《管子·小匡》: "平原廣牧, 車不結轍, 士不旋踵, 鼓之而三軍之士視死如歸."

다.

전후에 출현하는 구절이 ‘指物以託宗；空有以淪二；禱祀以邀福；伐善以矯人’처럼 모두 동일한 어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 분석은 쉽게 할 수 있다. 즉 ‘淪二’는 ‘託宗’, ‘邀福’, ‘矯人’처럼 述目관계의 어구임이 확실하다. 《说文》에 보면 ‘淪’은 ‘小波为淪’과 ‘没’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没’이 맞을 것이다. ‘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관건이 달려있는데, ‘淪二’가 述目관계인 것으로 보아서 ‘有와 無를 한 데 빠뜨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禱祀：‘祈禱’와 ‘祭祀’.

○ 邀福：‘福을 내려주기를 간구하다’⁵³⁾. ‘邀’은 ‘(얻기를) 바라다, 希求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 伐善：‘자신의 장점을 자랑(과시)하다’⁵⁴⁾. ‘伐’는 文言에서 ‘스스로 자랑하다(뽐내다·과시하다), 우쭐대다, 우쭐거리다, 자존자대(自尊自大)하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 矯人：‘사람을 속이다’. ‘矯’는 文言에서 ‘憑藉하다, 詐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 營營：‘營營役役’은 ‘名리를 좇아 종일토록 분주한 모양을 형용한다. 따라서 ‘營營’과 ‘役役’은 비슷한 의미를 표현한다⁵⁵⁾.

○ 役役：上同⁵⁶⁾.

○ 茫然無得：‘망연하기만 하여 얻는 것이 없다’. ‘茫然’은 失意한 모습을 형용한다.

○ 煎迫轉燒：‘煎迫’은 ‘빈틈없이 움죄고 재촉하여 불에 타는 듯하다’의 의미이다. ‘煎’은 ‘불에 타듯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고통을 주다’의 의미이다.

53) 唐 劉禹錫《相和歌辭·賈客詞》：“邀福禱波神，施財游化城。”

54) 《论语·公治长》：“愿无伐善，无施劳。”朱熹集注：“伐，夸也。善，谓有能。”

55) 《詩經·小雅·青蠅》：營營青蠅，止于樊。

56) 《莊子·齊物論》：終身役役，而不見成功。

- 積昧亡途 : '우매함을 쌓아 멸망의 길에 이르다'.
- 久迷休複 : '오랫동안 迷妄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休'는 否定副詞로서 '~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4. 나오며

17세기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발견은 중국과 서방세계에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으로 수많은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과거 동서양을 막론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景教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碑文의 내용과 사상에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정작 碑文 解讀이라는 기초자료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 통일된 모범번역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몇몇 종교학자, 문화학자들이 비문을 번역해내긴 했으나 唐 시기 古文, 그리고 碑文이라는 文體的 특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기존 외국연구자들의 번역을 단순 引用, 踏襲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몇 가지 아래와 같은 특징적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첫째, 과거의 연구보다는 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碑文을 해독하고자 하였고, 둘째, 논문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우선 260여 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향후 후속 논문들을 통하여 비문 전체를 완역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셋째, 기존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인용하고 이를 활용하되 보다 과학적이고 언어학적인 관점, 즉 統辭的 각도와 원칙에서 출발하여 번역문제에 접근해보았다. 漢文의 解釋은 일종의 외국어 번역과 같은 것이므로, 철저히 文法的 지식의 배경 하에서 출발해야 誤譯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語句분석을 통하여 기존 번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여러 부분 지적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미번역 부분에 대해 동일한 연구 관점과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景教碑文 관련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십 수 세기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碑文자료에 대해 당시 碑石 건립자들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반영하여 종교적 내용과 사상의 핵심을 짚어내기란 그리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향후 경교비문을 제외한 7 종의 景教經典의 내용을 상호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碑文 解讀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大秦景教流行中國碑頌并序

大秦寺僧景淨述

粵若，常然真寂，先先而無元，杳然靈虛，後後而妙有，總玄樞而造化，妙眾聖以元尊者其唯，我三一妙身，無元真主，阿羅訶歟。

判十字以定四方，鼓元風而生二氣，暗空易而天地開，日月運而晝夜作，匠成萬物，然立初人，別賜良和，令鎮化海。

渾元之性，虛而不盈，素蕩之心，本無希嗜。泊乎娑殫施妄，鈿飾純精，間平大於此是之中，隙冥同於彼非之內，是以三百六十五種，肩隨結轍，競織法羅。或指物以託宗，或空有以淪二，或禱祀以邀福，或伐善以矯人，智慮營營，思情役役，茫然無得，煎迫轉燒，積昧亡途，久迷休複。

於是我三一分身，景尊彌施訶，戢隱真威，同人出代，神天宣慶，室女誕聖於大秦，景宿告祥，波斯睹耀以來貢，圓二十四聖有說之舊法，理家國於大猷，設三一淨風無言之新教，陶良用於正信，制八境之度，鍊塵成真，啟三常之門，開生滅死，懸景日以破暗府，魔妄於是乎悉摧，棹慈航以登明宮，含靈於是乎既濟。能事斯畢，亭午升真，經留二十七部，張元化以發靈關，法浴水風，滌浮華而潔虛白。

印持十字，融四照以合無拘，擊木震仁惠之音，東禮趣生榮之路，存須所以有外行，削頂所以無內情，不畜臧獲，均貴賤於人，不聚貨財，示罄遺於我，齋以伏識而成，戒以靜慎為固，七時禮贊，大庇存亡，七日一薦，洗心反素。

真常之道，妙而難名，功用昭彰，強稱景教。惟道非聖不弘，聖非道不大，道

聖符契，天下文明。

太宗文皇帝，光華啟運，明聖臨人，大秦國有上德曰阿羅本，占青雲而載真經，望風律以馳艱險，貞觀九祀，至於長安，帝使宰臣房公玄齡，總仗西郊，賓迎入內，翻經書殿，問道禁闈。深知正真，特令傳授。貞觀十有二年秋七月，詔曰，道無常名，聖無常體，隨方設教，密濟群生，大秦國大德阿羅本，遠將經像，來獻上京，詳其教旨，玄妙無為，觀其元宗，生成立要，詞無繁說，理有忘筌，濟物利人，宣行天下。

所司即於京義寧坊，造大秦寺一所，度僧二十一人。宗周德喪，青駕西升，巨唐道光，景風東扇，旋令有司，將帝寫真，轉摸寺壁，天姿泛彩，英朗景門，聖跡騰祥，永輝法界。

案西域圖記，及漢魏史策，大秦國，南統珊瑚之海，北極眾寶之山，西望仙境花林，東接長風弱水，其土出火綉布，返魂香，明月珠，夜光璧，俗無寇盜，人有樂康，法非景不行，主非德不立，土宇廣濶，文物昌明。

高宗大帝，克恭纘祖，潤色真宗，而於諸州各置景寺，仍崇阿羅本為鎮國大法主。法流十道，國富元休，寺滿百城，家殷景福。

聖曆年，釋子用壯，騰口於東周。先天末，下士大笑，訕謗於西鎬，有若僧首羅含，大德及烈，並金方貴緒，物外高僧，共振玄網，俱維絕紐。

玄宗至道皇帝，令寧國等五王，親臨福宇，建立壇場，法棟暫橈而更崇，道石時傾而複正。天寶初，令大將軍高力士，送五聖寫真，寺內安置，賜絹百匹，奉慶睿圖，龍髯雖遠，弓劍可攀，日角舒光，天顏咫尺。三載，大秦國有僧佶和，瞻星向化，望日朝尊，詔僧羅含，僧普論等一七人，與大德佶和，於興慶宮修功德，於是天題寺榜，額戴龍書，寶裝璀璨，灼爍丹霞，睿紘宏空，騰凌激日，寵賚比南山峻極，沛澤與東海齊深。

道無不可，所可可名，聖無不作，所作可述。

肅宗文明皇帝，於靈武等五郡，重立景寺，元善資而福祚開，大慶臨而皇業建。代宗文武皇帝，恢張聖運，從事無為，每於降誕之辰，錫天香以告成功，頒禦饌以光景眾，且乾以美利故能廣生，聖以體元故能亨壽。

我建中聖神文武皇帝，披八政以黜陟幽明，闡九疇以惟新景命，化通玄理，祝無愧心，至於方大而虛，專靜而恕，廣慈救眾苦，善貸被群生者，我修行之大猷，汲引之階漸也。若使風雨時，天下靜，人能理，物能清，存能昌，歿能樂，念生響應，情發目誠者，我景力能事之功用也。

大施主金紫光祿大夫，同朔方節度副使，試殿中監賜紫袞裳，僧伊斯，和而好惠，聞道勤行，遠自王舍之城，聿來中夏，術高三代，藝博十全，始效節於丹庭，乃策名於王帳，中書令，汾陽郡王，郭公子儀，初總戎於朔方也，肅宗俾之從邁，雖見親於臥內，不自異於行間，為公爪牙，作軍耳目，能散祿賜，不積於家，獻臨恩之頗黎，布辭憩之金罽，或仍其舊寺，或重廣法堂，崇飾廊宇，如翬斯飛，更效景門，依仁施利，每歲集四寺僧徒，虔事精供，備諸五旬，餒者來而飯之，寒者來而衣之，病者療而起之，死者葬而安之，清節達姿未聞斯美，白衣景士，今見其人。

願刻洪碑，以揚休烈，詞曰，真主無元，湛寂常然，權輿匠化，起地立天，分身出代，救度無邊，日升暗滅，鹹證真元。

赫赫文皇，道冠前王，乘時撥亂，乾廓坤張，明明景教，言歸我唐，翻經建寺，存歿舟航，百福皆作，萬邦之康。

高宗纂祖，更築精宇，和宮敞朗，遍滿中土，真道宣明，式封法主，人有樂康，物無災苦。

玄宗啟聖，克修真正，禦榜揚輝，天書蔚映，皇圖璀璨，率土高敬，庶績鹹熙，人賴其慶。

肅宗來復，天威引駕，聖日舒晶，祥風掃夜，祚歸皇室，祆氛永謝，止沸定塵，造我區夏。

代宗孝義，德合天地，開貸生成，物資美利，香以報功，仁以作施，暘穀來威，月窟畢萃。

建中統極，聿修明德，武肅四溟，文清萬域，燭臨人隱，鏡觀物色，六合昭蘇，百蠻取則。

道惟廣兮，應惟密，強名言兮，演三一。主能作兮，臣能述，建豐碑兮頌元吉。

大唐建中二年，歲在作噩，太歲月七日大耀森文日，建立時法主僧寧恕知東方之景眾也

朝議郎前行臺州司士參軍呂秀巖書

助檢校試太常卿賜紫袞袞寺主僧業利

行通

檢校建立碑僧

僧靈寶~~~~□敬真

後一千七十九年咸豐己未武林韓泰華來觀幸字畫完整重造碑亭覆焉惜故友吳子苾方伯不及同遊也為悵然久之

〈參考文獻〉

- 景淨, 大秦景教流行中國碑(탁본), (발행처 불명), 1995
- 高亨 纂著, 『古字通假會典』, 齊魯書社, 1989
- 翁紹軍, 『漢語景教文典詮釋』, 三聯書店, 1996
- 朱謙之, 『中國景教』, 人民出版社, 1998
- 馮承鈞, 『景教碑考』, 商務印書館, 1976
-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그리스도교의 唐 전래와 景教 문헌과 유물에 나타난 중국 종교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출판부, 2005
- 李寬淑, 『중국기독교사』, 쿤란출판사, 1997
- _____, 『中國基督教史略』,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 정수일, 『문명교류사연구』, 사계절, 2002
-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 2002
- Young, John M. L, 정학봉 역, 『경교의 역사와 신학』, 동서남북, 2004
- 유재덕,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기독교역사』, 브니엘, 2013
- 林悟殊, 「西安景教碑研究述評」, 〈中國學術〉, 2000年第1期, 2000
- 우심화, 「大秦景教流行中國碑 碑文 譯註」, 〈神學과 宣教〉, 제9호, 2005
- 배영철, 「경교의 중국 전래에 대한 고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1983
- 김응배, 「唐나라 景教의 形成과 大秦景教流行中國碑에 대한 考察」,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1995

〈Abstract〉

New Translation of Roman Tang-Christianity Headstone

The discovery during the 17th century of a Christian headstone from the Tang dynasty had a great historical, religious, philosophical and cultural impact and reverberation for both China and the Western world. The great interest raised by this Christian Tang headstone led various scholars from the East and the West to formulate in-depth studies regarding the content and thoughts of the epitaph. Nevertheless, as a result of various conflicting ideas regarding the basic research of interpreting the epitaph, they have yet to offer a unified authoritative translation.

Comparative to the extent to which Christianity had spread and disseminated in Korea,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on Tang Christiani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past studies had been piecemeal resulting in a lack of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literature, doctrine and thoughts of Tang Christiani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 linguistic approach towards understanding the epitaph, the representative literature of Tang Christianity, in order to uncover mis-translations and problems in existing translations and offer corrections and supplements for a more reasonable and complete translation. Correct translation of Tang Christianity scripture can be invaluable basic material for scholars of Tang Christianity. Therefore, prior to an ideological or philosophical approach, I believe this linguistic approach has ample scholarly merit.

Key Words: Tang-Christianity, Epitaph, New translation, linguistics

關鍵詞: 景教, 碑文, 新譯, 언어학, 解讀

이 논문은 2016년 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